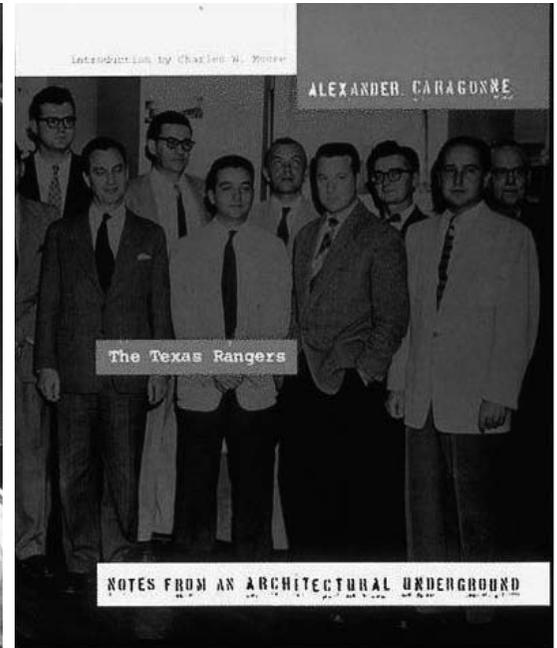


건축교육과 시대성

Spirit of time and architectural education



IAUS-Peter Eisenman과 교수진



University of Texas-Texas Rangers 교수진

지난 2012년 9월과 12월에 걸쳐 유럽의 영향력 있는 건축지 「AR」(Architectural Review, 9월/영국)과 「DOMUS」(12월/이탈리아)에서 다급하고 다소 긴장된 어조로 현시대의 건축교육의 진부함과 변화에 대해 불감한 건축교육에 대한 경종을 알리는 '건축 대학 교육현황'에 대한 특집 이슈가 게재되었다.

1671년 정식 커리큘럼을 갖춘 건축교육이 프랑스 보자르(Beaux-Art)에 처음 설립된 이래 서양건축교육개념과 방식 속에는 단계적 변화와 진화가 있었으며, 20세기에 이르러 수많은 사회변화 속에 주기적인 사이클로 변화에 대한 자극이 있었다.

군주의 최고 권력 이행과 국가의 체계적 통치를 위해 설립된 보자르는 유럽과 미국 모든 건축교육의 기초가 되었지

만 19세기말 산업혁명이란 변화에 'Arts & Craft School'이라는 대안을 낳았으며, 이후 효율과 기능으로 무장한 기계시대(Machine Age)의 사회는 바우하우스와 모더니즘이라는 이념으로 전 세계의 건축문화와 교육의 방향을 독보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도 진행이 되었던 유토피아 이념적 'White Modernism'과 바우하우스식의 교육은 더 이상 시대적 배경과 교감이 없는 무의미한 교육으로 그 영향력은 점차 University of Texas('Texas Rangers' 교수진), Architectural Association(Alvin Boyarsky 학장) 그리고 Cooper Union(John Hejduck 학장)과 같은 건축의 새로운 발상적 근원을 찾으려는 실험적 교육중심의 학교로 전가되었다.

1968년 프랑스의 Unite pedagogique d' Architecture no.6



Yale Architecture School 방화

대학에서는 새로운 시대와 학생의 요구를 묵인한 진부한 이념에 저항하여 폭력적 학생시위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변혁의 불꽃은 1969년 미국 예일대학 건축 학생들의 방화 시위를 초래하는 거센 교육혁명의 요구를 불러왔다. 그리고 교육의 진부함을 비평하는 학원내의 기운은 교육내용과 시스템 비평을 넘어 건축이 무엇인지와 건축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같은 근본적 사고의 재검토와 건축문화 전반을 흔드는 다양한 실험적 교육 및 대안학교의 시도로 전개되었다. 1976년 이태리 건축사 Giancarlo de Carlo와 Team 10 멤버들이 이끄는 'Laboratory of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과 Peter Eisenman과 Keneth Frampton 외 다수의 New York 건축사 중심으로 설립된 'Institute For Architecture and Urban Studies(IAUS,1967-84)'가 그 예라 하겠다.

실험적 교육과 대안 학교는 활동배경이 되는 시대적 영향력에 비해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존속했다는 점에서 전위적 운동과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즉 변화를 이끄는 영향력이 새로운 자극을 창출하고, 그 자극의 영향이 또 다시 보편화가 되

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변화의 원동력은 소멸 한다는 것이다. 진부한 교육의 불만이 실험적 교육의 발상을 낳고 성공적인 실험교육이 다시 실험교육의 표준이 되어 그것이 진부함으로 이르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예와 같이 당연한 논리이라 하겠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주기적 순환이 1960년대 서양의 폭력적 학생시위, 건축과 사회변화의 어그러지고 동떨어진 거리감 같은 심각한 상황을 거치지 않게 하는 것이 학교와 교육자의 책임과 의무이며 이는 곧 한세대의 학생들이 당연히 (무력으로라도...)주장할 수 있는 그들의 미래가 걸린 권리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의 대학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캠퍼스라는 교육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온라인 대학의 확장에 거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 기반 구축에 투자를 하고 있다. 온라인 대학이란 당연히 전문지식과 고등교육의 보다 광범위한 보급과 이를 유지한 대학의 막대한 수익성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건축교육의 기본인 스튜디오 방식은 이와 같은 개념의 교육과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이어오던 전통적인 스승과 제자 그리고 그 사이에 'Craft' 라는 숙련에 기본을 둔 스튜디오라는 시공간적 교육방법은 시대의 요구와 상반되는 교육방법적 문제에 직면한다.

20세기 전반, 건축사와 건축은 모든 응용 예술의 종합(Total Work of Art)이라는 이해 속에서 디자인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그 개념을 사회, 문화 그리고 산업적 응용과 영향을 주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Deutscher Werkbund) 이러한 입지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변화하는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점차 그 영향력이 쇠퇴하는 동시에 건축가의 사회와 문화의 선두 주자로서 영향력 또한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10여 년 동안 디자인의 개념은 급기야 '상업적 설득력'이라는 단편적 개념으로 변조되어 왔고 건축교육과 학교들이 이같이 건축교육의 범주를 상실하고 있는 동안 최근 Havard Business School에서는 디자인과 상업경영 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제 디자인은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법과 이유의 기능보다는 상품성으로의 가능성에 중점을 둔 치장적 역할에 국한되기까지 하였다. 이제 우리는 과거 건축계에서 변화와 진보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현시점에서 시사 하는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건축인의 소명과 역할 속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볼 시점일 것이다. ▣

발췌 참조 기사

<http://www.architectural-review.com/essays/radical-pedagogies-in-architectural-education>
<http://www.domusweb.it/en/magazine/964/>